

AHP를 활용한 아름다운 장소 이미지의 중요도 인식 분석

Analysis on the Importance of Beautiful Place Images Recognition Using AHP

이 임 정*
Lee, Lim-Jung

조 치 웅**
Cho, Chi-Woung

노 경 란***
Noh, Kyung-Ran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mage factors of places located in natural and humanistically superior geographical locations. It aims to analyze image recognition and spatiality of scenically historical Sahmyook University, located northeast of Gangneung, through standardization. **Method:** The analysis method of landscape is composed of data investigation and research, and elements of how students, faculty, and visitors recognize a place's beautiful image will be examined. **Result:** A phenomenological approach was applied to how the images of beautiful place were set by FGI group meeting, and how such factors affect beautiful place's perception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When looking at comprehensive ranking of image factors in recognition of beautiful landscapes, factors corresponding to forest landscapes appear at the top rank. In determining factors for its recognition, shared space with natural elements such as water, trees, flowers, etc. has been analyzed to have the biggest influence. Among factors corresponding to urban landscape, 'streets and pedestrian paths' is of medium importance and are recognized for it is artificial structure coexisting with natural elements shared with humans. The image corresponding to 'city area' and 'architecture' was analyzed to have insignificant influence on beautiful places' image recognition for artificial element was prioritized.

주 요 어 : 농촌경관, 장소이미지, 경관인식, 도시개발, AHP분석

Keywords : Rural landscape, Place image, Landscape recognition, Urban development, AHP analysi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반세기 동안의 무질서한 도시공간의 확장 및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개별 도시 고유의 전통적 공간구조의 왜곡과 장소성 상실이라는 내적 문제점과 함께 획일적인 도시 형태라는 공통적 문제점을 고정시켜 왔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근래에 들어서는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도시환경 재정비계획, 경관관리계획, 주민참여형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경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

이러한 다양한 도시정비 사업들은 부동산 정책 및 투기 과열로 지역의 보존 및 경관성 보호보다는 무차별적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부동산 투기과열로 이슈가 되도 있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그린벨트 해제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 훼손에 대한 우려의 논란이 시작되고 있다.²⁾

20세기 초까지 잘 보존되던 태강릉이 훼손된 것은 일제강점

기인 1937~1938년 태릉 남쪽 영역에 조선인 지원병 훈련소가 들어서면서다. 해방 뒤 1946년 이 자리에 군사영어학교(현 육군사관학교)가 자리 잡았다. 1949년 삼육대가 강릉 북동을, 1961년엔 서울여대가 태릉의 남서를 차지했다. 1966년 태릉과 강릉 사이에 태릉선수촌, 태강릉의 남쪽 영역에 태릉골프장, 1971년엔 태릉과 서울여대 사이에 태릉사격장이 들어섰다. 이렇게 태강릉은 이리저리 뜯겨 위엄을 잃고 홍살문과 어로, 정자각, 봉분 구역만 초라하게 남았다.

더욱이 2016~2018년엔 아파트 등 주택 9,900채가 태릉골프장 남쪽 구리 갈매지구에 최고 29층 높이로 들어서 태강릉에서 보는 구룡산(안산-앞산) 경관을 병풍처럼 막았다. 갈매지구는 태강릉에서 1km가량 떨어졌는데도 경관에 악영향을 줬다.

이와 같은 도시의 많은 변화와 발전이 특색있는 도시의 경관 자원이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도시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도시 이미지의 마케팅이나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³⁾.

이에, 본 연구는 도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살고 싶은 도시의 이미지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장소의 이미지 중요도 특성을 분석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연구함으로써 아름다운 장소의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 및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Environmental Design & Horticulture, Sahmyook University, ijlee0504@nate.com)

**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원예학과 교수, 공학박사

***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원예학과, 박사과정

1) 김영환, 도시민의 경관인식 및 도시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7(7), 2011, pp.143-150.

2) 김태훈, 결국 개발되는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훼손' 논란 확산, 세계일보, 2020.08.04., <http://m.segye.com/view/20200804509591>

3) 김규원, 태릉골프장 떠난 곳에 공원인가, 아파트인가, 한겨레21, 2020.11.17., <https://news.v.daum.net/v/20201117081812821>, 2020.11.17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공간적 위치의 범위는 강릉 북동과 인접해 위치한 서울시 노원구 화랑(공릉동)에 위치한 정문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이 후면에 해당되는 삼육대학교 캠퍼스와 그 인접 지역 1.0km 내·외로 구간을 포함한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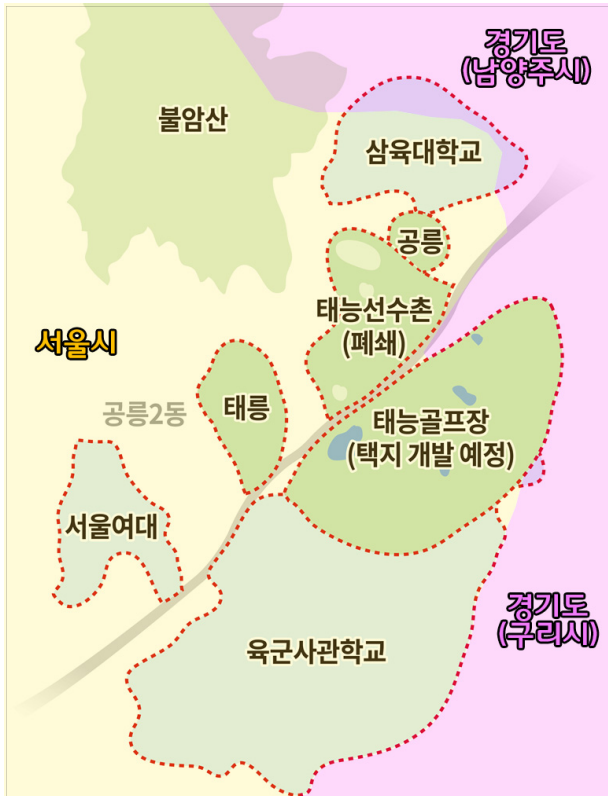


Fig. 1. The Damage of the Taereung and Gangneung Areas

문화재청도 2015년 '세계유산 조선 왕릉 보존·관리·활용 중장기계획 연구'에서 태릉사격장과 태릉선수촌 철거에 이어 태릉골프장 안에 있는 외금천교와 연못 부지를 매입해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0월12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 기준은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할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 보존"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태강릉 영역 주변으로 역사적 문화유산과 경관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도에 표현된 장소 이미지를 통해 대중적으로도 익숙한 장소이기에 지금도 도시민들이 즐겨 찾는 강릉, 태릉, 태릉선수촌, 경춘로 숲길, 태릉 프라타나스 나무 가로수길 등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서울여대, 태릉과 강릉 사이에 태릉선수촌, 태강릉의 남쪽 영역에 태릉골프장, 태릉사격장 등이 인접해있어 방문 접근성 및 용의성이 높은 곳이다.

이에, 아름다운 자연경관 자원과 교육 시설이 공존하고 다양한 방문 목적 및 공간이용의 행태가 나타나는 삼육대학교 캠퍼스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학 내 이용자 및 방문객이 아름다운 장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장소 인식에 관한 요소를 정량화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크게 현상학적 접근방식의 지표설정과 도시민 설문조사로 나누어진다.

먼저 현상학적 지표설정을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연구에서의 현상학적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두 번째, 관련 이론과 방법론을 검토하여 지표설정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시대에 따라 경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나 경관과 장소에 관한 기본 개념을 우선으로 분석하였다. 세 번째, 신문·인터넷 기사·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언론 기사를 분석하여 역사성과 지역성의 타당성 및 빈도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 지표를 가지고 지표 유형화를 진행하였다. 1차에서 전문가 심층면접(Depth Interview)을 위해 경관심의 경력자와 도시 및 경관 전공자, 도시 및 경관계획의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3개의 그룹으로 관련 학회 및 대학, 관련 공무원들에게 추천을 받아 인터뷰를 3회 실시하였다. 2차에서 FGI(Focus Group Interview)는 엔지니어 전문가와 관련 전문가인 교수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4월에 3회 실시하여 지표가 완성되었다. 설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분석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Expert Choice, MS Excel 2017의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현상학적 접근 방법

(1) 현상학적 접근

현상학적 측면에서 경관을 분석 또는 평가하는 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관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대상으로 한다. 인체의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물리적 자극은 물론이고 경관의 역사, 의미, 느낌 등도 대상으로 삼으며, 이들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경관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내는 경관분석의 방법 중 하나이다.

경관분석에서 현상학적 접근은 경관의 평가 또는 분석 기법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접근은 기존의 과학적·정량적 접근에 대비될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이른바 과학적 평가 방법에서 일반성 또는 대표성의 추구로 인하여 경시될 수밖에 없었던 개개인의 경험 및 고유성의 파악을 중심 과제로 삼고 있다.

(2) 현상학

현상학은 어떤 대상을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체험의 기술을 통해 인식하고자 한다. 여기서 체험의 기술이라 함은 선입관이나 편견 등이 없는 순수 의식의 상태에서 체험되는 바를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일반 과학과는 달리 확고한 출발점도 채택하지 않으며, 일관된 접근 방향도 취하려 하지 않는다. 현상학은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할 뿐이다. 경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물이 스스로 밝혀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점진적이고 불명확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러한 불명확한 과정으로 인해 현상학이 애매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현상학이 지닌 본래의 특성이다. 따라서 현상학은 특정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독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ph, 1983).

2.2 경관(landscape)과 장소(place)

현상학적 접근이 환경 설계와 관련하여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장소성(Sense Of Place)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성의 개념은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전통적인 환경 설계 방법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종합적이고 체험적인 새로운 차원에서의 환경 설계 방법을 암시해주고 있다. 경관의 개념과 장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몇 가지 관점에서 보면

(1) 우리가 경관을 생각할 때는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함축됨을 느끼지만, 장소를 생각할 때는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함축됨을 느낀다. 따라서 경관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눈앞에 전개되는 ‘전경(前景)’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장소는 ‘중심’ 또는 ‘점’의 의미를 함축한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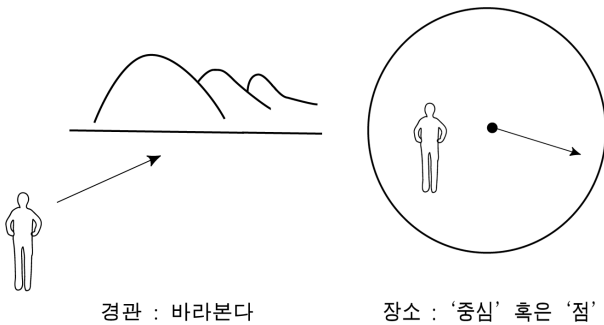


Fig. 2. Concept of Landscape and Place (Lim, 2009)

(2) 경관은 물리적 구성의 성격이 강하며 넓은 공간적 범위를 함축하고 있는 데 비해, 장소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적 범위를 함축하며 물리적 성격에 더하여 행동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배 장소, 노는 장소, 싸우는 장소 등과 같이 장소에는 특정 행위나 기능이 관련되며, 따라서 장소에는 행동적 또는 기능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장소는 행위를 함축함으로써 인하여 경관에 비해 더욱 경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릴 때 놀던 장소 또는 그녀와 거닐던 오솔길(장소)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과 특정 공간이 어우러진 경험을 함축하는 경우가 많다.

(4) 장소는 행동의 중심이고 경관은 장소에서 밖으로 전개되는 전경이라고 본다면, 장소의 영역 확대에 따라 경관은 장소로 전환된다. 또한, 한 장소를 중심으로 다른 장소를 보게 되면 다른 장소는 중심이 되는 장소의 전경, 즉 경관으로 전환될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 떨어져 관찰할 때는 도시 ‘경관’을 보게 되지만, 그 도시에 들어가면 도시는 행위를 담은 다양한 ‘장

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경관과 장소는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상호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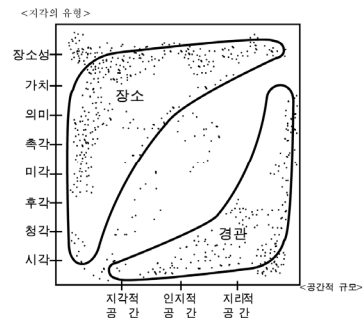


Fig. 3. Comparison of Landscape and Place Characteristics (Lim, 2009)

하지만 ‘장소의 무용’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공간적 형태를 현상학적 입장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시몬(Seamen, 1982)에 의해 제시된 개념이다. ‘장소의 무용’은 신체 무용(body ballet)과 시·공간적 습관(time-space routine)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시몬은 주장한다. 이 ‘장소의 무용’은 사람, 시간, 및 장소가 융합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개념은 주민 자신들에게 중요한 개념이며 일상생활에 느끼고 있는 있으나 표현하지 못했던 바를 대변해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한다<Fig. 4>.

지금까지 현상학적 입장에서 경관을 분석하기 위한 뚜렷한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최근에 현상학적 입장에서 가정(home)의 여러 측면을 분석한 연구들을 볼 수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기법들은 경관의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전문가의 경험적 고찰, 개방적 인터뷰, 분류법(sorting) 및 다차원 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기법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장소 이미지 구성요소를 파악 후 인터뷰를 통해 장소 인식의 특성 및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Fig. 4. C. Noberq-Schulz's Analysis of Landscape (ezistential approach)

2.3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는 크게 도시 이미지에 관한 인지도 연구와 도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인지하는 가로경관 문헌으로 구분하였다.

인지도에 관한 연구는 김만곤(1987)에서 연령에 따른 인지 패턴분석을 초등학교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박은영(1992)은 서울소재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도시 이미지를 파악하였다. 이규목(1993)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도시경관 이미지를 분석하였고 이훈(1999)은 청주시민의 도시 이미지의 인지특성을 분석하였다. 김현무(2000)는 H대학교 주변의 공통이미지 특성을 조사하였고, 이진숙·김한나(2010)는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 이미지 인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로경관에 관한 연구는 윤중국(2002)에서 환경인지적 관점에 따른 건축형태가 가로경관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박승환(2006)은 가로개선 설계과정의 도시간 가로를 분석하였다. 서병규(2010)는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정비방향으로 건축물의 용도, 형태, 마감재료 등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추지웅(2013)은 가로 경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도시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간의 가로경관 이미지가 어떠한 요인들과 연계가 되고 영향을 주는지 계획의 입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도시민들 입장에서의 연구나, 장소 인식 또는 도시 이미지 정량화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초까지 잘 보존되던 태강릉이 부동산 정책과 투기 과열로 경관 훼손과 보존의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이에 경관 훼손의 우려가 큰 태릉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 및 방문객을 중심으로 도시민들의 장소 인식 이미지를 알아보고, 장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정량화한다는 것에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3. 분석의 틀

3.1 AHP(계층분석방법)

계층분석방법은 다 기준 의사결정 기법으로서 다양한 평가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와 대안들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하고 각 요소들의 속성과 측정척도가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의사결정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순위화시켜서 그 가중치를 비율척도로 도출하는 기법이다.⁴⁾

이 방법은 1970년대 초반에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가 개발되었으며,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쌍대비교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방법론이다. 문제를 분해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정보도 동시에 평가가 가능한 기법이다(Son et al.,2015).

4) 김석준, 이상호, 허영기, AHP분석을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지, 20(2), 2019, pp.79-86.

AHP의 가장 큰 특징이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요인으로 나누고 이들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각 의사결정 기준의 중요도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평가 기준이 여러개 일때 개인의 판단력은 각각의 상대적인 비중이나 중요도를 고려하여 한꺼번에 가중치를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계층의 평가 기준을 2개씩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

먼저 쌍대비교를 통하여 두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여 쌍대비교행렬 $A_{n \times n}$ 을 구성한다. 구성 식을 보면 식(1)과 같다(Son et al.,2015).

$$A = [a_{ij}] = \begin{pmatrix} W_{11} & W_{12} & \dots & W_{1n} \\ W_{21} & W_{22} & \dots & W_{2n} \\ \dots & \dots & \dots & \dots \\ W_{n1} & W_{n2} & \dots & W_{nn} \end{pmatrix} \quad (1)$$

이 때 행렬 A를 구성하는 a_{ij} 는 요소 j에 대한 요소 i의 상대적 가중치이다.

행렬 A에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인 열벡터 $v=(v_1,v_2,\dots,v_n)T$ 를 곱하면 식(2)와 같다(Son et al.,2015).

$$A \cdot v = n \cdot v \quad (2)$$

여기서 n은 행렬 A의 최대고유치(maximum eigenvalue)가 된다. 즉, n개의 연립방정식 체계에서 non-zero 해를 구하는 고유치 문제가 된다. 이 식으로부터 v의 해를 구한 값을 평가항목별 가중치 벡터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여 평가 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결정되면 이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는 일관성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일관성 비율이 0의 값을 가지면 응답자가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Saaty는 일관성 비율이 0.1미만이면 쌍대비교가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도시민들의 장소 인식의 요소를 객관·정량화하기 위해 상대적 중요도의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3.2 장소 인식 요소의 지표설정

지표설정은 1단계 요소도출과 2단계 지표 유형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Fig. 5>.

5) 정성림·나주몽, 광양항의 항만물류배후단지 효율성과 경쟁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1), 2013, pp.57-78.

6) 정성태, 물류효율 제고를 위한 포장체계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SCM학회지, 18(2), 2018, pp.151-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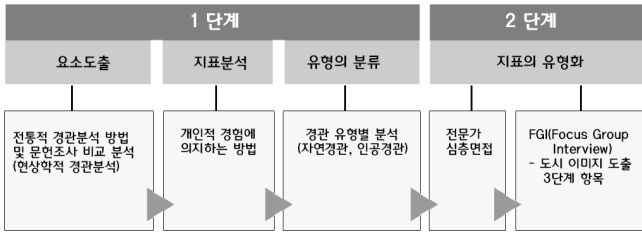


Fig. 5. Index setting and categorization research method

첫째, 아래의 표는 전통적인 경관분석을 보여주는 지표요인들이다. 경관의 다양한 분석방법 중 경관 본질의 의미를 분석하는 개인적 경험에 의지하는 장소성이 강조되는 현상학적 접근 방식을 분석의 틀로 정한다<Table 1>.

Table 1. Comparison of Traditional scientific method and Phenomenological method.⁷⁾

전통 과학적 방법	현상학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적 • 폐쇄적 : 가설, 정의 등을 중요시함 • 환원주의적 : 실제 상황을 단순화 시킴 • 정량적 접근 • 인과관계에 관심을 가짐 • 정확성을 강조함 • 예측 지향적 • 신뢰성과 타당성이 요구됨 • 피험자의 특성 및 개성이 연구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설명을 목표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적 • 개방적 : 가설, 정의 등을 배제함 • 총체적 : 실제 상황을 대상으로 함 • 정성적 접근 • 인과관계에 대해 회의를 가짐 • 예측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임 • 체험적 차원에서의 타당성이 요구됨 • 피험자의 개성 및 특성이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이해를 목표로 함

둘째, <Fig. 6>은 경관의 종류를 보여주는 것으로, 경관을 보는 경관 이미지는 크게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으로 분리된다. 본 논문은 자연경관의 산림경관, 도시경관의 도시경관에 해당되는 장소 이미지를 분석한다<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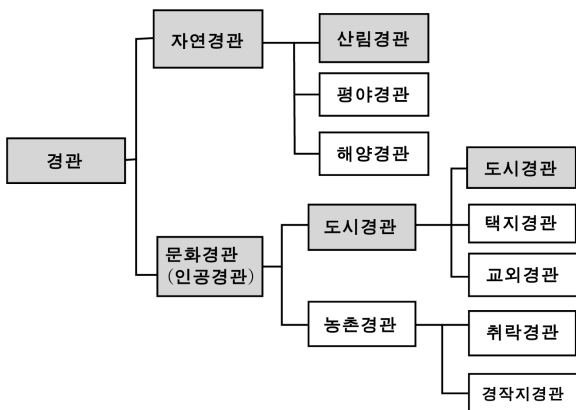


Fig. 6. Landscape form (Lim, 2009)

셋째, 다양한 경관분석법 중 개인적 경험에 의지하는 방법은 현상학적 접근의 분석방법이다. 이러한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아름다운 장소 이미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이미지를 전문가 집단심층면접의 집단토론(FGI)을 통해 최종 지표를 설정한다<Fi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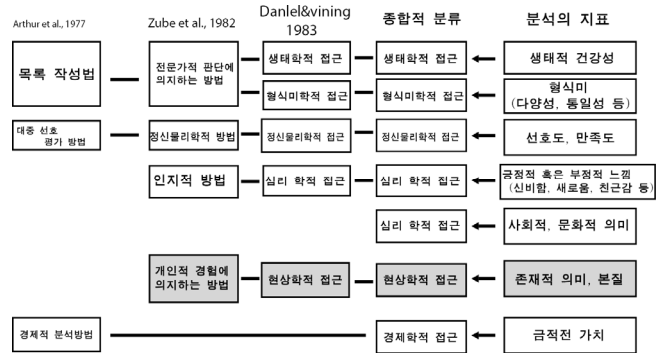


Fig. 7. Landscape analysis method (Lim, 2009)

도시민이 인식하는 장소의 추상적인 이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삼육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불암산 자락과 인접하고 1.0km 범위에 해당하는 자원을 분석하여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으로 분리하였다. 다음으로 분리한 장소들이 역사성, 보존성, 자원의 중요도가 있는지 문화재청 및 인터넷 조사, 문헌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캠퍼스 내의 인공자원들은 학생 및 교직원, 방문객의 이용도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장소들의 이미지들이 가장 잘 드러나고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서 촬영하였다. 정리된 이미지들은 FGI를 통해 재정립하였다.






FGI는 관련 업종 엔지니어 전문가 2인과 관련 전문가인 교수 및 공무원(교수 2인, 공무원 1인)을 대상으로 2021년 4월에 3회 실시하였다. FGI 결과를 통해 20개의 항목을 산림경관과 도시경관 부문으로 분류하여 상위항목 체계로 설정하였으며, 각 평가지표별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여 조정하였다. 최종 적 합성 검토 결과는 20개의 평가지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도출된 도시민들의 장소 인식 요소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참고하여 산림/녹지, 수변, 역사/문화재, 시가지, 가로 및 보행로, 광장, 건축물/시설 부문으로 분류하여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고자 한다<Fig. 8>, <Table 2>.










Fig. 8. Analytic Hierarchy Process

7) 임승빈,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192.

Table 2. Location image selection

분류	평가 항목 (상위)	항목별 세부평가 지표	세부평가지표 이미지
산림 경관 (2)	산림/녹지 (2)	불암산 자락	 <p>서울 노원구와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別內面)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산정에는 옛 성터인 불암산성과 봉화대 터가 남아 있다. 부근 일대에는 육군사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 · 삼육대학교 · 태릉선수촌 등이 있다. 서울 근교의 등산 코스로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 든다.</p>
		자연 숲 놀이터	 <p>제명호 옆에는 '삼육대학교 부속유치원'의 숲유치원 시설로, 숲 생태 프로그램 "어린이들이 숫자와 글자가 아닌 자연 속에서 뛰어 놀게 하라" 으로 사용되고 있음.</p>
도시 경관 (5)	역사/문화재 (3)	수변 (1)	 <p>제명호는 삼육대의 전신인 삼육신학원의 초대 원장을 지낸 제임스 밀턴 리(James Milton Lee, 이제명) 목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는데, 학교 측에서 1940년대말 미군 부대의 장비와 인력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으며, 불암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자연적으로 가두어 만든 인공호수로 하트 모양으로 지어짐</p>
		강릉	 <p>명종은 모후 문정왕후의 3년 상을 마친 후 며칠이 지난 1567년(명종 22)에 세상을 떠나, 태릉 동쪽 언덕에 먼저 능을 조성하였다. 그 후 1575년(선조 8)에 인순왕후 심씨가 세상을 떠나자 명종의 강릉 좌측에 쌍릉으로 능을 조성하였다.</p>
도시 경관 (5)	역사/문화재 (3)	태릉	 <p>1565년(명종 20)에 문정왕후 윤씨가 세상을 떠나 산릉자리를 중종의 정릉(靖陵) 부근으로 하였다가(신정릉(新靖陵)), 명종의 반대로 산릉자리를 다시 정하였다. 이후 현재의 자리로 산릉이 결정되면서 능의 이름을 태릉(泰陵)이라 하였다.</p>

분류	평가 항목 (상위)	항목별 세부평가 지표	세부평가지표 이미지
도시 경관 (5)	가로 및 보행로 (5)	오얏봉	 <p>삼육대학교 교정에 있는 기도의 동산, 이곳을 학교 터로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두분의 성인 '오얏 이'에서 따온 것임.</p>
		시가지 (1)	 <p>경기도 남양주시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지어진 별내 신도시</p>
		학교입구	 <p>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정문으로 바로 옆에는 조선 제13대 국왕인 명종과 인순왕후의 무덤인 강릉이 자리잡고 있음.</p>
		소나무 가로길	 <p>삼육대학교 정문길을 따라 형성된 소나무 가로수길.</p>
		벚꽃길	 <p>삼육대백주년 기념관을 따라 대강당(선교 70주년기념관)까지 이어지는 벚꽃 가로수길.</p>
도시 경관 (5)	가로 및 보행로 (5)	화랑로 가로수길	 <p>옛 경춘선 화랑대역(폐역)에서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을 지나 삼육대 정문 앞까지 이어지는 옛 태릉로(현재 화랑로에 편입) 양옆으로는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가로수 길.</p>
		경춘로 숲길 (폐선)	 <p>늑슨 철로는 2015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숲길로 변신했고, 지난해 행복주택공릉지구 구간(0.4km)이 개통하며 총 6km 경춘선숲길이 완성.</p>

분류	평가 항목 (상위)	항목별 세부평가 지표	세부평가지표 이미지
광장 (3)	잔디광장		 중앙도서관, 에스라관, 제1과학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잔디 광장으로서 학교축제 및 콘서트가 이루어짐.
	쫄로몬 광장		 중앙도서관 앞 광장으로 학생들의 축제나 각종 행사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열린 광장으로 학생들의 모임이 많은 장소이다.
	박물관앞 광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에 위치한 삼육대학교 부속 박물관 앞에 형성된 광장.
건축물/시설 (5)	운동장		 학교 체육대회 및 축제가 이루어지는 대운동장.
	삼육대학교회		 미국에서 시작된 개신교단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의해 설립하였고, 삼육대학교 캠퍼스 내 위치한 교회.
	100주년 기념관		 삼육대학교 100년사를 기념하여 만든 건축물.
	온실		 환경디자인원예학과에서 식물을 기르고 실습하는 곳으로 1학년 기본 노작 교양수업과 연계하여 전학년이 식물을 키우며 정서적 교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삼육 초·중·고		 삼육대학교 캠퍼스 내 위치한 사립 교육기관.

4. 장소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4.1 대상지의 이해

본 연구의 대상인 삼육대학교는 1906년 평안남도 순안에 W. R. 스미스 목사가 세운 의명학교라는 신학교가 모태이다. 1931년에 조선합회 신학교라는 명칭으로 동대문구 청량리동 현 시조사 자리로 이전하였고, 1942년에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되었다. 1947년에 다시 조선합회 신학교로 재건되었고, 1949년에 현 위치인 노원구 공릉2동으로 이전, 삼육신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1년 교육법 개정으로 종합대학과의 구별이 사라지면서 1992년에 삼육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2년에는 교표가 현재의 마크로 변경되었다. 2006년 삼육의명대학과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⁸⁾

지리적 위치로는 강릉 북동과 북한산 자락에 인접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우수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별내신도시와 갈매 신도시의 개발로 삼육대학 주변 태릉 일대는 경관 훼손으로 인해 도시민의 휴식 및 힐링 공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4.2 설문개요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의 형식은 2021년 6월~10월에 걸쳐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총 8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Table 3>.

Table 3. Location image (Respondent analysis)

	분류	빈도	백분율
성별	남	31	37.3
	여	52	62.7
직업	교직원	26	31.3
	학생(초·중·고·대학생)	23	27.7
	방문객	23	38.6
	기타	2	2.4
연령	10대	3	3.6
	20대	10	12.0
	30대	9	10.8
	40대	13	15.7
	50대 이상	48	57.8
해당지역을 알고 지낸 기간	1년 미만	10	12.0
	1년 이상~5년 미만	13	15.7
	6년 이상 ~ 10년 미만	20	24.1
	11년 이상 ~ 15년 미만	40	48.2
삼육대학교 방문 목적	근무	24	28.9
	수업	26	31.3
	산책 및 방문객	29	34.9
	기타	4	4.8
계		83	100.00

8) 삼육대학교, 삼육대학교 100년사, 1906.10.10., https://www.syu.ac.kr/wp-content/uploads/2018/07/syu100years_01.pdf

본 연구의 요인 분석을 위해 설문에 응한 표본의 성별 분포는 남성(37.3%), 여성(62.7%)의 분포를 보이며, 직업에서는 교직원(31.3%), 학생(27.7%), 방문객(38.6%), 기타(2.4%) 등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에서는 10대(3.6%), 20대(12.0%), 30대(10.8%), 40대(15.7%), 50대 이상(57.8%) 등으로 나타났고, 해당 지역을 알고 지낸 기간에서는 1년 미만(12.0%), 1년 이상 ~ 5년 미만(15.7%), 6년 이상 ~ 10년 미만(24.1%), 11년 이상 ~ 15년 미만(48.2%) 등으로 분포하였다. 삼육대학교 캠퍼스 방문 목적에서는 근무(28.9%), 수업(31.3%), 산책 및 방문객(34.9%), 기타(4.8%)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학교의 출입은 제한되었지만 교직원의 출근과 교육의 목적, 산책 및 방문객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고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11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꾸준히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간 대상지를 방문하여 산책과 힐링을 즐기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4.3 장소 인식 지표의 중요도 평가

(1) 세부 평가 속성의 분류 및 평가항목 도출

아름다운 장소를 인식하는 장소 이미지에 대한 평가지표의 중요도 분석을 하였다. 여러 주요 평가 속성을 도출하기 위해 2개 대분류 평가항목, 7개 중분류 평가항목, 그리고 20개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분류하였다<Table 4>.

Table 4. Evaluation indicators and hierarchy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산림경관 (2)	산림/녹지 (2)	불암산 자락	
		자연 숲 놀이터	
	수변 (1)	제명호	
도시경관 (5)	역사/문화재 (2)	강릉명종 정자각	
		태릉	
		오얏봉	
	시가지 (1)	별내신도시	
	가로 및 보행로(5)	학교입구	
		소나무 가로길	
		벚꽃길	
		화랑로 가로수길	
	건축물/시설(5)	광장(3)	경춘로 숲길 (폐선)
			잔디광장
솔로몬 광장			
건축물/시설(5)		박물관앞 광장	
		운동장	
		삼육대학 교회	
		100주년기념관	
온실			
삼육 초·중·고			

4.4 AHP분석 결과 (전체 집단 대상)

AHP 계층분석과정에 의한 평가는 평가 집단들의 토의를 통하여 각 쌍대 비교 항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개발 평가자들이 각각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기하 평균을 이용하여 종합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설문지를 이용하여 평가를 한 후에 다시 종합하는 후자의 기하 평균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하평균법이 쌍대 비교의 역수 성질을 만족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1) 대분류간 중요도 평가

평가항목을 건축물 경관계획으로 제시하여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의사결정 속성들을 쌍대 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하고, 고유치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 속성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⁹⁾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산림경관(.657)이 비교 대상인 도시경관(.343)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관성 검증은 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Relative importance of the large category items

	대분류 항목	상대적 중요도
경관 인식	산림 경관	.657
	도시경관	.343

(2) 중분류 간 중요도 평가

① 산림 경관 하위 중분류 항목의 중요도 평가

평가항목을 산림 경관 관련 중분류 요인들인 산림/녹지와 수변에 대해 쌍대 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하고, 의사결정 속성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산림/녹지’(.572), ‘수변’(.428) 등의 순으로 도출되었다<Table 6>.

Table 6. Relative Importance of Sub-category of Forest landscapes. (Whole)

대분류	중분류 항목	상대적 중요도
산림경관	산림/녹지	.572
	수변	.428

② 도시경관 중분류 항목의 중요도 평가

도시경관 부문 하위 중분류 요인들로 ‘역사/문화재’, ‘시가지’, ‘가로 및 보행로’, ‘광장’, ‘건축물/시설’ 등의 5개에 대해 쌍대 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하고, 의사결정 속성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가로 및 보행로’(.28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역사/문화재’(.215), ‘광장’(.201), ‘건축물/시설’(.175), ‘시가지’(.121) 등의 순서대로 중요도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7>.

9) 이성호·최주영, AHP를 활용한 골프장 입지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4(3), 2017, pp.389-398.

Table 7. Relative Importance of Sub-category of Urban Landscapes

대분류	중분류 항목	상대적 중요도
도시경관	역사/문화재	.215
	시가지	.121
	가로 및 보행로	.288
	광장	.201
	건축물/시설	.175
Consistency Index		.005
Random Index		1.11
Consistency Ratio		.005

(3) 세부항목 간 중요도 평가

① 산림/녹지 세부항목 간 중요도 평가

산림/녹지 관련 하위 세부항목으로 ‘불암산’, ‘자연숲 놀이터’ 등 2개를 제시하여 쌍대 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불암산’(.682)이 ‘자연숲 놀이터’(.318)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Table 8>.

Table 8. Relative importance of detailed Forest/Greenland items

	중분류 항목	상대적 중요도
산림/녹지	불암산	.682
	자연숲 놀이터	.318

② 역사/문화재 세부항목 간 중요도 평가

역사/문화재 관련 세부항목으로 ‘강릉명중 정자각’, ‘태릉’, ‘오얏봉’ 등 3개를 제시하여 쌍대 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태릉’(.392)이 가장 중요도가 높고, 다음으로 ‘오얏봉’(.339), ‘강릉명중 정자각’(.269) 등의 순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Table 9>.

Table 9. Relative importance of detailed Historical/Cultural properties items

	중분류 항목	상대적 중요도
역사/문화재	강릉명중 정자각	.269
	태릉	.392
	오얏봉	.339
Consistency Index		.005
Random Index		.525
Consistency Ratio		.010

③ 가로 및 보행로 세부항목 간 중요도 평가

가로 및 보행로 관련 세부항목으로 ‘학교입구’, ‘소나무 가로길’, ‘벚꽃길’, ‘화랑로 가로수길’, ‘경춘로 숲길’ 등 5개를 제시하여 쌍대 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경춘로 숲길’(.308)이 가장 중요도가 높고, 다음으

로 ‘화랑로 가로수길’(.241), ‘벚꽃길’(.213), ‘소나무 가로길’(.162), ‘학교입구’(.076) 등의 순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Table 10>.

Table 10. Relative importance of detailed Street and Walkway items

	중분류 항목	상대적 중요도
가로 및 보행로	학교입구	.076
	소나무 가로길	.162
	벚꽃길	.213
	화랑로 가로수길	.241
	경춘로 숲길	.308
Consistency Index		.009
Random Index		1.11
Consistency Ratio		.008

가로 및 보행로는 사람들의 접근성과 동선의 연결성이 중요한 것으로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행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광장 세부항목 간 중요도 평가

광장 관련 세부항목으로 ‘잔디 광장’, ‘솔로몬 광장’, ‘박물관 앞 광장’ 등 3개를 제시하여 쌍대 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잔디 광장’(.375)이 가장 중요도가 높고, 다음으로 ‘솔로몬 광장’(.365), ‘박물관 앞 광장’(.261) 등의 순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Table 11>.

Table 11. Relative importance of detailed Square items

	중분류 항목	상대적 중요도
광장	잔디 광장	.375
	솔로몬 광장	.365
	박물관 앞 광장	.261
Consistency Index		.004
Random Index		.525
Consistency Ratio		.007

도시민들은 다양한 목적의 광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좋고 특별한 이벤트 요인이 없더라도 동선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위치의 광장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⑤ 건축물/시설 세부항목 간 중요도 평가

건축물/시설 관련 세부항목으로 ‘운동장’, ‘삼육대학 교회’, ‘100주년 기념관’, ‘온실’, ‘삼육초·중·고’ 등 5개를 제시하여 쌍대 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100주년 기념관’(.294)이 가장 중요도가 높고, 다음으로 ‘삼육초·중·고’(.203), ‘운동장’(.173), ‘온실’(.170), ‘삼육대학 교회’(.160) 등의 순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Table 12>.

Table 12. Relative importance of detailed Building/Facility items

	중분류 항목	상대적 중요도
건축물/시설	운동장	.173
	삼육대학 교회	.160
	100주년 기념관	.294
	온실	.170
	삼육 초·중·고	.203
Consistency Index		.005
Random Index		1.11
Consistency Ratio		.004

건축물/ 시설은 역사적 의의나 외부 형태에 대한 디자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 중 100주년 기념관은 100주년을 기념하여 설계한 의의도 있고 건물의 형태나 재료도 다른 건물과 차별성이 있어 도시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4.5 종합 가중치와 우선순위

앞서 산출한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 가중치를 산출하고 20개 세부항목의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분석방법은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의 가중치를 곱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하나는 비교 대상 항목의 수에 따른 조정방법으로 문항 수가 적을수록 높은 가중치의 값을, 문항 수가 많을수록 낮은 가중치의 값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모든 항목이 문항 수에 따라 다른 가중치의 값을 조정 한 후 다음 단계의 분석에 투입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항 수를 고려하여 조정된 가중치로 산출된 대분류 가중치, 중분류 가중치, 세부항목의 가중치를 모두 곱한 후에 합산가중치 합이 1이 되도록 2차 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¹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세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3>.

Table 13. Comprehensive Importance of Detailed evaluation items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가중 중요도	순위
산림경관	산림/녹지	불암산 자락	.123	1
		자연 숲 놀이터	.057	6
	수변	제명호	.067	4
도시경관	역사/문화재	강릉명종 정자각	.035	14
		태릉	.051	8
		오얏봉	.044	12
	시가지	별내신도시	.025	19
		학교입구	.022	20
	가로 및 보행로	소나무 가로길	.048	9
		벚꽃길	.063	5
		화랑로 가로수길	.071	3
		경춘로 숲길 (폐선)	.091	2

10) 송대석·최주영·이임정, 건축물 경관심미에서의 경관계획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 한국도시부동산학회, 12(3), 2021, pp.41-58.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가중 중요도	순위	
건축물/시설	광장	잔디광장	.046	10	
		솔로몬 광장	.045	11	
		박물관앞 광장	.032	15	
	건축물/시설	운동장	운동장	.031	16
			삼육대학 교회	.029	18
			100주년기념관	.053	7
			온실	.031	16
			삼육 초·중·고	.036	13

가중 중요도는 1단계에서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에 대해 각각 문항 수에 따른 보정을 하고, 2단계에서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의 보정된 중요도를 곱하고 합산이 1이 되도록 추가 조정 한 값

먼저, 산림경관 관련 세부평가항목으로 '불암산 자락', '자연 숲 놀이터', '제명호' 등 3개, 도시경관 관련 세부평가항목으로 '강릉명종 정자각', '태릉', '오얏봉', '별내신도시', '학교입구', '소나무 가로길', '벚꽃길', '화랑로 가로수길', '경춘로 숲길 (폐선)', '잔디광장', '솔로몬 광장', '박물관앞 광장', '운동장', '삼육 대학 교회', '100주년기념관', '온실', '삼육초·중·고' 등 17개 항목을 제시하여 총 20개를 동시에 가중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우선순위를 산출하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총 20개 세부항목 중에서 '불암산 자락'(.123)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경춘로 숲길 (폐선)'(.091), '화랑로 가로수길'(.071), '제명호'(.067), '벚꽃길'(.063), '자연 숲 놀이터'(.057), '100주년기념관'(.053), '태릉'(.051), '소나무 가로길'(.048), '잔디광장'(.046), '솔로몬 광장'(.045), '오얏봉'(.044), '삼육초·중·고'(.036), '강릉명종 정자각'(.035), '박물관앞 광장'(.032), '운동장'(.031), '온실'(.031), '삼육대학 교회'(.029), '별내신도시'(.025), '학교입구'(.0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민들이 "아름답다"라고 인식하는 장소의 요소는 도시경관보다는 자연경관의 요소를 선호하며, 도시경관의 요소 중에서도 자연적 요소가 함께 공유되는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불암산 자락'의 요인은 '벚꽃길'과 같은 도시경관의 요인은 2배 차이 나는 것으로 같은 자연의 요소가 공존하지만, 도시민들은 자연 그대로의 요인을 포함한 산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이나 경관계획가는 최대한 자연적 요소를 인공경관에 인위적으로 계획을 하지만 도시민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녹색의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기존에 형성된 녹색환경의 장소를 보존하는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재 공간은 하위순위로 녹색 환경의 장소이지만 특정 한 목적이 아닌 이상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고 함께 하는 공간 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건축물 및 시설물'도 특정한 목적의 방문과 이용자의 한계로 도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연계성은 떨어지나 자연으로 형성된 자연경관 요소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요인으로 도시민들은 아름다운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경관분석 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로서 추상적인 장소의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아름다운 장소를 인식하는 이미지 요인을 정량화하였다. 이에, 장소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체계화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개인의 경험을 세부평가항목의 중요도로 분석하여 실제로 일반인들은 경관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으나 아름다운 장소에 대한 공감 인식은 전공자와 상관없이 누구나 인식하고 공유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 결과

첫째, 제1 계층 간 상대적 중요도는 산림경관 > 도시경관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도시민들은 도시의 인공경관보다는 자연경관을 더 우선시하는 평가항목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2 계층 간 중분류 평가항목 중 산림경관 부문의 상대적 중요도는 산림/녹지 > 수변 순으로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나타났다. 도시민들은 수변보다 산림의 녹지를 더 아름다운 장소, 찾고 싶은 장소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경관 부문의 상대적 중요도는 가로 및 보행로 > 역사/문화재 > 광장 > 건축물/시설 > 시가지 등 도시의 기반시설로 도시민들과 가장 많이 연관된 요인들로 가장 중요한 요인 것으로 나타나 도시민들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가로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세부항목 간 중요도 평가 중 산림/녹지 부문의 상대적 중요도는 불암산 > 자연숲 놀이터 순이며, 역사/문화재 부문의 상대적 중요도는 태릉 > 오얏봉 > 장릉명종 정자각 순이다.

가로 및 보행로 부문의 상대적 중요도는 경춘선 숲길 > 화랑로 가로수길 > 뽕꽃길 > 소나무 가로길 > 학교 입구 등의 순으로 검증되었다.

광장 부문의 상대적 중요도는 잔디광장 > 솔로몬 광장 > 박물관 앞 광장 순이며, 건축물/시설 부문의 상대적 중요도는 100주년 기념관 > 삼육초등학교 > 운동장 > 온실 > 삼육대학교 회회 등의 순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장소를 인식하는 이미지 요인에 대한 종합순위를 살펴보면 ‘산림 경관’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상위권으로 나타나 아름다운 장소를 인식하는 요인 결정에 있어 산림경관의 자연요소인 물, 나무, 꽃 등과 같은 자연요소와 함께하는 공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경관 유형 부문에 해당하는 요인 중 ‘가로 및 보행로’는 중상위권으로 인공구조물이지만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연요소가 공존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장소의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시가지’ 및 ‘건축물’에 해당하는 장소 이미지는 인위적인 요소가 우선시 되는 하위권으로 아름다운 장소의 이미지 인식에는 미비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시의 건축/시설물의 인위적인 요소보다는 힐링 및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지낼 수 있는 자연적인 공간 요소를 아름다운 장소로 인식하며 도시경관 계획 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도 동선과 동선이 연결되고 시간 제약이 없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이어야 한다. 특별한 방문의 새로움보다는 문 열고 나가면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도시민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민들에게 추억의 장소로 인식되고 아름다운 장소로 인지되는 추상적인 이미지의 요인을 정량화하였으며, 중요도 가중치의 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 및 도시개발 여건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연구의 한계는 있다. 추후 다양한 계층의 공간 인지 선호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경성립, 나주몽, 광양항의 항만물류배후단지 효율성과 경쟁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논문집, 25(1), 2013.
2. 김규원, 태릉골프장 떠난 곳에 공원인가, 아파트인가, 한겨레신문, 2020.11.17., <https://news.v.daum.net/v/20201117081812821>
3. 김석준, 이상호, 허영기, AHP분석을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2), 2019.
4. 김영환, 도시민의 경관 인식 및 도시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7(7), 2011.
5. 김태훈, 결국 개발되는 태릉골프장...‘그린벨트 훼손’ 논란 확산, 세계일보, 2020.08.04., <http://m.segye.com/view/2020080450959>
6. 삼육대학교, 삼육대학교 100년사, 2018, <https://www.syu.ac.kr/wp-content/uploads/2018/07/>
7. 송대석, 최주영, 이임정, 건축물 경관심의에서의 경관계획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 한국도시부동산학회논문집, 12(3), 2021.
8. 임승빈,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9. 이성호, 최주영, AHP를 활용한 골프장 입지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논문집, 24(3), 2017.
10. 정성태, 물류효율 제고를 위한 포장체계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SCM학회논문집, 18(2), 2018.
11. Gill-Chin Lim and Johann Albrecht, A search for an alternative planning theory: Use of phenomenology,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4(1), 1987.

접 수 일 자 : 2022. 02. 07
초 심 완 료 일 자 : 2022. 04. 04
재심(1차)완료일자 : 2022. 04. 14
게 재 확 정 일 자 : 2022. 04. 15